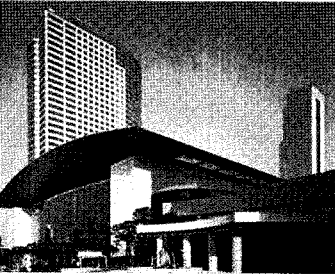


2002 세계화장실 대표자회의

(World Toilet Summit 2002)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글. 강석남
/한화협 사무국장/



2002 세계 화장실 대표자회의는 지난 2000년 협의회에서 주최한 한일 화장실 포럼에서 제기된 것으로 세계의 화장실 문화개선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세계의 화장실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이다.——

WTS 2002의 취지와 목적

21세기를 맞아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이 인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인간의 마지막 배설물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음과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은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된 것을 그간의 국제 교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대표적인 화장실 조직들은 각 국가에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다양한 방법의 개선노력을 상호 이해하고 교환하는 일과 아직 화장실 개선이 되지 않음으로써 겪는 인류의 비위생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세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화장실 대표자회의에서 각 국가의 화장실 조직들은 다음의 개최지를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월드컵대회가 개최되고 최근 화장실 개선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2002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계 화장실 단체들의 만남은 상호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와 환경 보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화장실 개선의 방안 마련 등 수많은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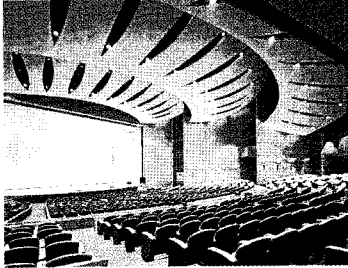
WTS 2002 준비과정

싱가포르 회의에서 차기 개최국으로 결정된 후 협의회는 국내적으로는 대회 준비 사무국을 코엑스에 두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수원시,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조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를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싱가포르 협회, 일본 협회, 대만 협회, 영국 협회 등과 WTS 2002의 성격 및 회의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선거로 인한 단체장 및 실무자 교체로 인해 예산 확보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싱가포르 협회와의 회의 성격 등에 대한 갈등으로 오랫동안 준비가 지지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 선진 화장실문화 습득
- 한국의 발전된 화장실문화 확산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 선진화된 화장실문화 및 시민의식 고취
-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 공유
- 세계 화장실 관계자와의 교류 확대 및 정보의 공유
- 세계 화장실문화 개선 방안 모색

World Toilet Summit & Kirex 2002



오디토리움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 3층

하지만 회의 공식 홈페이지 오픈 (www.worldrestroom.org)을 계기로 지난 8월 도쿄에서 일본 협회, 싱가포르 협회와 회의를 가진으로써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8월 12일 실행위원회(위원장:전영상 동양대학 교수/한화협 이사)의 활동을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30여개국의 화장실 협회 및 화장실 관계자 100여명과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의 화장실 관련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20여개 국가의 관련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화장실 문화엑스포 개최 (Korea International Restroom 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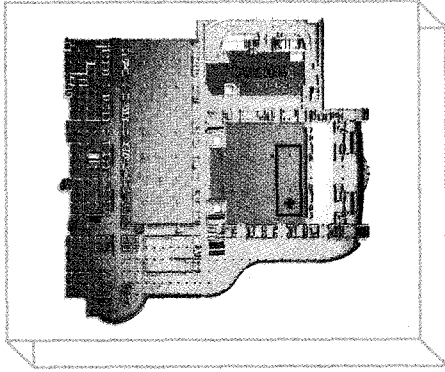
협의회는 WTS 2002의 개최와 함께 KIREX를 개최하여 한국의 화장실관련산업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협의회의 활동이후 폭발적으로 전개된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을 계기로 그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화장실관련산업이 신기술과 신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문화 환경 복지화장실로 탈바꿈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시장확대에 이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하여 다가오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화장실문화개선이 시급한 지금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이 해외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엑스는 한국의 대표적인 컨벤션업체로서 화장실전문전시회를 추진하는데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기회를 통해 연차적으로 국제전시회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회의 및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orld Toilet Summit & Kirex 2002



인도양홀 (New Exhibition Hall)

전시회장_컨벤션센터 1층

화장실 이벤트관 설치

WTS 2002는 세계화장실에 대한 회의와 관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이 화장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화장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관을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제껏 기피하기만 하였던 화장실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협의회는 그간의 활동으로 화장실은 시설과 관리 이용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들어갈 때 제 모습을 찾고 특히 시설과 관리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진행되고 또 그 시설과 관리의 배려에 대해 이용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자기 집같이 아끼는 마음이 생겨날 때 비로소 화장실로 인해 생겨나는 제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벤트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에 관련한 세계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 관련 실무자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화장실 대표자 회의”

| 10월 31일 |

시 간		행 사 내 용
개회식	10:30	대회사 축사 각국 대표 소개 및 인사, 축하메시지
	11:00	특별 강연
	11:30	KIREX Tape Cutting 및 관람
중식	12:30~14:00	점심시간
	14:00~16:30	각 나라의 화장실 실태 및 개선운동 보고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보고서	16:30~17:30	각국 대표자 회의
	18:00~19:30	축하 리셉션

“각 국의 화장실 실태보고”

| 11월 1일 |

시 간		행 사 내 용	
개회식	9:30~12:00	각 나라의 화장실 실태 및 개선운동 보고 - 러시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인도 등	
중식	12:00~13:30	점심시간	
친교의 시간	13:30~14:00	친교의 시간	
주제 토론	14:00~15:30	A:도심지 화장실의 기준 사례 및 설계의도 중심 3개국 발표	B:산악 강 바다 등 자연속의 화장실 기준 사례 및 설계의도 중심 3개국 발표
	15:30~17:00	C:학교 화장실의 기준 사례 및 설계의도 중심 3개국 발표	D:일시적 대규모 행사시의 화장실 규모 사례 및 설계의도 중심 3개국 발표
정리 및 폐회	17:00~17:30	차기 개최지 발표 화장실 선언문 채택 폐회 선언	

“한국의 아름다운 화장실 투어 (서울 경기)”

| 11월 2일 |

시 간		행 사 내 용	
	9:30~15:00	서울 - 지하철 1개소, 도심지 동아빌딩, 경복궁, 청계산 입구 수원 - 에버랜드, 민속촌, 문막 휴게소, 반딧불이, 장안공원	